르포-갈치잡이 제철 맞은 거문도 앞바다

"작년보다 두배 더 잡혔는데 기름값도 안빠져 속만 타요"

요즘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巨文島) 앞바다는 온통 '은빛'이다. 제철을 맞은 은빛 갈치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새벽녘 거문도항을 흥청거리게 하고 있다.

16일 새벽 3시 거문도항 동쪽 10마일(1mile=1천850m) 해상. 50여척의 갈치잡이 배들이 대낮같이 환하게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하고 있었다. 10t급 갈치 채낚이 어선 '영광호'(선장 송종길)의 선원 5명도 쉴 새없이 낚싯줄을 드리웠다. 이들이 15개의 바늘이 달린 10m짜리 대나무 낚싯대를 끌어올릴 때마다 은빛 갈치들이 갑판에서 은빛 군무를 선보였다.

야행성인 갈치를 잡는 데는 '채낚기'라는 방식을 쓰는데, 미끼로는 '삼마'(냉동꽁치)를 이용한다. 어선마다 6~7개씩 대나무 낚싯대가 있다. 영광호가 이날 잡은 생선은 갈치 60kg(1상자·10kg)을 비롯한 고등어 10kg 등 모두 70kg.

꼬박 밤을 새운 영광호는 이날 새벽 6시 거문도 항으로 돌아왔다. 입항과 동시에 갈치를 크기별로 분류해 위판장으로 향했다.

이날 위판장에선 ▲대(大) 1상자당 18만원 ▲중(中) 1상자 당 13만~15만원 ▲소(小) 1상자 당 6만~7만원 선에 낙찰됐다.

위판장을 나오는 송종길 선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우리 다섯 명이 함께 꼬박 하룻밤을 고생했는디 80만원밖에 못 벌었소. 이것으론 기름값도 힘든디..."

현재 면세유 가격은 경유 1드럼(200ℓ) 당 10만5천640원. 보통 갈치잡이에 나설 경우 3~4드럼을 사용한다고 하니 이를 빼고 인건비와 출어비, 어구대 등을 감안하면 80여 만원으로 생계 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거문도 수협의 올해 갈치 위판량은 207t(16억6천200만원). 지난해 같은 기간 100t(8억원)에 비해 107% 늘었다.

하지만 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kg당 평균 2만원 정도 떨어졌고, 소비량도 줄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자연 아니겠소. 그란디 오늘 갈치 많이 못 잡았다고 해서 걱정은 안해라우. 혹시 아요 낼 출항 땐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지. 이러니께 우리는 항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제."

또 다른 갈치잡이 배 복성호' 선장 최현선(53)씨는 다시 바다를 보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한편 갈치 풍어를 기원하는 올해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 위판장 등에서 열린다. 문의 080-665-7788.

/거문도=이종행 기자 golee@

갈치잡이 채낚기 어선 '영광호'가 16일 새벽 3시 거문도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집어등을 켜고 은빛 갈치를 낚아 올리고 있다. /거문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더위 9월 중순까지

광주·광양·순천 폭염경보

16일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더위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광주·광양·순천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대치됐고, 이외 전남 대부분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광주의 낮 기온은 33.5도까지 치솟았으며, ▲무안 34.9도 ▲영암 34.7도 등이었다.

이번 더위는 오는 19일 한 두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8월 하순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더운 날이 많겠다"며 "9월 상순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중국 내륙에서 발달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순까지 평년 평균기온(14~23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9월 강수량은 평년(173~333㎜)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운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 해지면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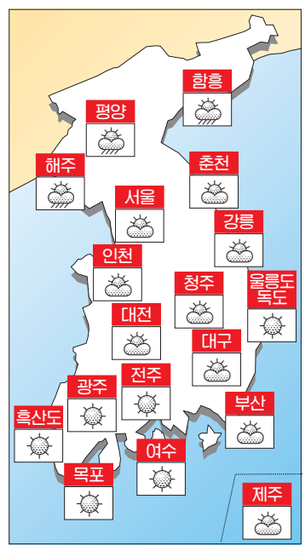
▲폭염특보=하루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하루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낮 최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모래알은 '반짝'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덥겠다.

8월 17일 (음 7월 5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24~34℃
목 포	구름 조금	25~32℃
여 수	구름 조금	24~31℃
완 도	구름 조금	24~32℃
구 례	구름 조금	25~34℃
해 남	구름 조금	23~32℃
장 흥	구름 조금	23~32℃
고 흥	구름 조금	24~32℃
순 천	구름 조금	23~34℃
영 광	구름 조금	24~33℃
진 도	구름 조금	23~33℃
전 주	구름 조금	24~34℃
남 원	구름 조금	22~34℃
흑산도	구름 조금	24~3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04:47 17:04 썰물 〈 10:01 22:13
여 수 밀물 〈 11:29 23:38 썰물 〈 05:17 17:24

▲해뜸 05:53 ▲해짐 19:20 ▲달뜸 09:46 ▲달짐 21: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 씨						
최저/최고	24/31	25/29	25/32	24/31	25/32	24/31

화순 도산유적지 구석기 석기군 발굴

조선대박물관 발굴팀 석기 유물 1,700여점 발견

조선대박물관 발굴조사팀(책임자 이기길 교수)은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석기군(石器群)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도산유적지에서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발굴조사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능주~이양간 도로포장 공사구간 도산마을 지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반암 위에 6개의 지층으로 구분된 구석기시대 토양 층에서 중기부터 후기구석기 시대에 걸친 4개의 유물층(4천735㎡)을 발견했다.

이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제1유물층에서 대형 격지(돌을 망치로 쳐서 떨어져나온 조각)와 함께 '석기 작업장'이 발견됐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찍개와 여러면석기, 밀개, 긁개 등 600여점의 유물〈사진〉이 나왔다.

발견된 석기들은 그 종류와 유물층의 층위로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발굴된 석기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중기구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제2유물층에서는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찍개 등 1천100여점의 주먹도끼 석기군이 발굴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비위생' 음식점 167곳 적발

광주·전남 식약청

광주·전남지역 167개 음식점 등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천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리산 등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외식업체 등 ▲광주 25곳 ▲전남 142곳 등 모두 167곳의 업소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3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6곳 ▲무신고 영업 47곳 등이다. 적발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일해 공원내 '화려한 휴가' 상영 강행

합천군, 불허 불구…시민단체 오는 23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공원 명칭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합천군의 '일해 공원'에서 5·18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상영된다.

'새천년생명의숲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합천군의 '일해공원' 야외 공원장 사용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오후 8시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화려한 휴가' 상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는 '화려한 휴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제출한 공원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을 합천군 측에서 불허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14일 운동본부가 보낸 공원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에 대해 공원 수목 피해 등을 들어 불허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16일에는 합천종합사회복지관 내 영화 상영에 대해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군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를 대며 불허했다. /연합뉴스

순천지청 무고·위증사범 34명 적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올 상반기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20명과 위증 사범 14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무고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채무면탈 및 채권회수 목적(8명) ▲원한에 따른 음해(5명) ▲이익취득(3명) ▲사람 및 물건 찾기(2명) ▲형사책임 회피(2명) 목적 순이었다.

위증 사범의 경우 ▲친분관계 및 온정주의형(6명) ▲공범비호형(4명) ▲범행은폐형(3명) ▲이득취득형(1명) 순이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의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낭비 현상을 초래한다"며 "거짓말 사범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엄정하게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지검 가짜 학위·자격증 단속

광주지검은 16일 가짜 학위·가짜 자격증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검 특수부에 전담반을 편성, 분야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업무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국번 없이 전화 1301번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며 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범죄신고센터에서도 관련 제보와 신고를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